

해인사 미술관 고찰문화포교 '새 장'

10일부터 개관기념 고승선서화전 열어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 들어가는 초입에 불교 전용미술관이 개관된다. 10일 문을 여는 '해인사미술관(관장 성공스님)'은 해인사 입구 기념품을 파는 상가 건물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3층 연건평 70여평 규모의 불교전용 미술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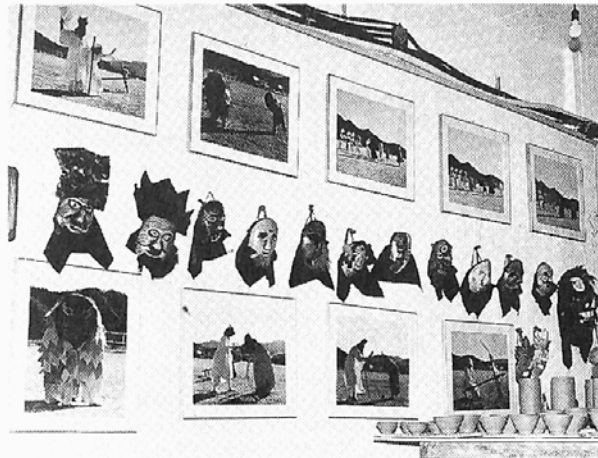
해인사미술관 3층은 전시장, 1층에는 도예교실과 전통차집 '이릿포'가 들어서며 2층은 식당이다. 다도시에도 불교전용전시관이 드문

현실에서 고찰(古刹) 앞에 위치한 해인사미술관의 개관은 불교문화발전과 포교에 지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인사미술관은 개관기념으로 10일부터 해인사와 인연있는 고승 선서화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구하 구산 경봉 청담 환경 율하 석주 일타 송월 수안 중광 스님 등 고승대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불교적 사유를 엿볼 수 있는 서예와 그림 70여점이 전시돼 해인사

를 참배하는 관람객들에게 선함을 느끼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1층의 도예교실에는 합천의 자람거리이며 오광대의 시빌지인 합천 초계대관대탈 20여종과 광대놀이 사진과 발우 다기 등 도예가 상설 전시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 2회 도예 정기강습과 관람객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는 실습의 기회도 제공한다. 성공스님은 도자기실습을 위해 인근 황자산초등학교 부지에 도자기기마도 마련해 놓았다. 또 전통차집 '이릿포'를 국악공연 등에 언제나 장소



◇10일 개관하는 해인사미술관의 1층 초계대관대탈과 도예전시장 모습

를 개방해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해인사 미술관은 앞으로 그림으로 유명한 중광·수안스님 초대전, 불교대사화전, 불교사진전, 유명 도예가작품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계획하고 있다.

관장 성공스님은 "연 1백만명의

해인사를 찾는 참배객과 관광객들에게 우리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살아있는 포교공간이 되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불교미술전을 기획해 해인사미술관이 경남의 새 문화명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천=이윤호 기자

불심시심 <102>

물성은 다르지만

- 嗟爾山中菊與楓 서글프다, 산 속의 국화와 단풍은 (차이산중국여풍)
- 胡爲天賦不相凋 어찌하여 천성으로 타고남이 같지 아니한가 (호위천부불상동)
- 三春嫩葉濃千樹 봄날의 연한 잎 일천 나무 짙으며 (삼춘노엽농천수)
- 九夏殘莖出數莖 여름철 두어 줄기 몇 줄기 무성하다가 (구하잔경출수송)
- 漸覺重陽枝散葉 흐드러진 중앙절 가지 끝 푸릇리이고 (난만중양지대악)
- 衰凋一夕綠轉紅 쇠잔한 하루 저녁에 푸르름이 붉음으로 변하다 (쇠조일식록변홍)
- 香透十月露瀟瀟 시월달 향기로운 꽃 서리 놀러 서 있어서 (향파시월풍상림)
- 應笑停容散故風 골 바람에 초췌한 모습 날림 응당 웃겠지 (응소체용산곡풍)

이 시는 오양대사가 지은 단풍과 국화는 본성이 다르다(風菊殊性)한 시이다. 이렇듯 서로 다른 처지이나, 자연 이치의 구현은 다를 것이 없다는 내면의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듯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상황은 다른 것이 바로 사물 각각의 태어남의 차이이다. 이것을 알려 본바탕의 차이와 하지만, 태어남의 본바탕인 물성의 본연에서야 다를 것이 없다. 마치 학의 다리 길, 단풍은 비록 빛의 화려함이 있을 수 없으나, 일이라는 생명의 한계에 다다름을 대조시켜 영화와 쇠락의 갈림길을 잘 말투려 놓았다.

봄날 일찍이 있을 피워 온 숲을 푸르게 물들였던 단풍이 있는가 하면, 여름철 마지막이 두어 줄기를 들어내는 늦은 출발이 가을을 맞이하여서는 서로 영화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 출발했던 단풍은 이제 비록 붉음의 빛으로야 국화와 맞설 수 있겠지만, 이는 조락이라는 떨어짐을 앞에 둔 황

혼의 노을빛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화는 이제 식물로서의 절정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 서릿발에 오히려 빛을 더하는 싱그러움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렇듯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상황은 다른 것이 바로 사물 각각의 태어남의 차이이다. 이것을 알려 본바탕의 차이와 하지만, 태어남의 본바탕인 물성의 본연에서야 다를 것이 없다. 마치 학의 다리 길, 단풍은 비록 빛의 화려함이 있을 수 없으나, 일이라는 생명의 한계에 다다름을 대조시켜 영화와 쇠락의 갈림길을 잘 말투려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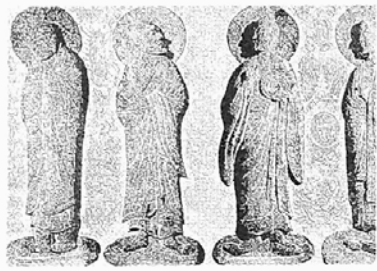
이렇듯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상황은 다른 것이 바로 사물 각각의 태어남의 차이이다. 이것을 알려 본바탕의 차이와 하지만, 태어남의 본바탕인 물성의 본연에서야 다를 것이 없다. 마치 학의 다리 길, 단풍은 비록 빛의 화려함이 있을 수 없으나, 일이라는 생명의 한계에 다다름을 대조시켜 영화와 쇠락의 갈림길을 잘 말투려 놓았다.

이충찬 <동국대 교수>

불상·탑소재 신작 30여점 감상

정비파 특판화전 11일까지 대구 예술마당 '술'

불자 관화가 정비파씨의 목관화 전시회가 11일까지 대구 예술마당 술(053-427-8141)에서 열린다.



◇정비파 작 '석굴암 10대제자'(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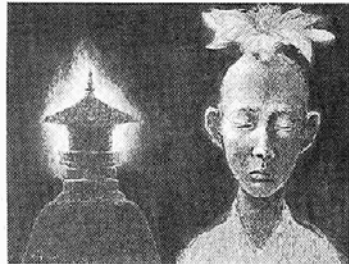
'휴남새, ...부처마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석굴암 십대제자, 경주 남산의 불상과 탑 등을 소재로 한 30여점의 작품들이 채색목판화로 소개된다.

화제의 전시

"그림으로 보는 마음자리 찾기"

박항를 개인전 31일까지 관훈동 추재화랑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불자화가 박항를씨의 개인전이 31일까지 관훈동 추재화랑(02-738-3583)에서 열린다.



◇박항를작 '생의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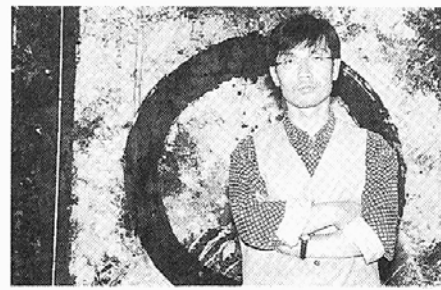
마음자리 찾기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박항를씨는 독특한 서정성을 표현한 '생의 명상' '유혹' '새벽' 등 4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정도의 그리움 화폭에 담았어요"

귀국전 여는 재독화가 정영창씨

전쟁 마약 에이즈 등 사회성 높은 테마를 즐겨 다뤄 온 재독화가 정영창씨(40)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귀국전을 갖는다. 9월 서울 전시에 이어 오는 9~19일 광주 송원갤러리(062-510-7121)에서 또 한차례의 개인전을 갖는 정씨는 유럽화단에서 '신표현주의의 성격'을 띠면서 한국적인 정신성을 강하게 표출하는 작가로 주목받아 왔다.

"반야심경등을 독경을 들으며 작품을 합니다. 독경을 하다보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 마음을 비워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이번엔 전시되는 '아제이제 바라아제' '윤희' 시리즈는 부조리한 현실과 대비되어 정도에 대한 그림



◇작품 '전쟁' 앞에서 있는 정영창씨

몸과 강한 회귀원력이 한층 표출된 작품.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유럽 각지에서 16회의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는 정영창씨는 한마음선원 독일 지원 신도회 총무를 맡고 있는 등 독일에서의 불교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는데 첫 귀국전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고국을 자주 찾아 작품을 선보이게 될 것 같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문화재 소식

"제주법화사 1269년 이전 창건"

'지원 6년' 명문기와 출토...연혁 확인자료

제주도 법화사가 1269년 이전에 창건됐으며, 중창공사가 10년이상 걸렸음을 알려주는 명문기와가 발견돼 불교계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대박물관(관장 고창석)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법화사지 7차발굴조사 결과 '지원6년기사(至元六年己巳)'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됐다. 박물관측에 따르면 '지원6년'은 원(元)나라 세조6년 즉 고려 원종10년(1279)인 1269년을 가리키는 것. 93년 5차발굴 때 발견한 '시중창십육년기묘필(始中創十六年己卯畢)'이란 명문기와와 맞춰볼 때 중창공사가 1269년부터 고려 충렬왕5년(1279)인 1279년까지 10년에 걸쳐 이뤄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창석교수는 "지원이라는 연호가 새겨진 기와가 출토된 것은 7차에 걸친 발굴 중 가장 큰 수확"이라며 "법화사의 연혁(중창연대)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주사 칠성바위 천문관측용"

황호균씨 주장... "배치상태 복두칠성과 유사"

운주사의 칠성바위가 세계 최고(最古)의 천문관측 수치를 실물로 제공하는 초국보급 유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전남대박물관이 마련한 호남의 문화유산 강좌에서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씨가 제기한 것.

황씨에 의하면 칠성바위는 한때 원반형 7층석탑의 옥개석으로 오해받기도 했지만, 배치상태를 보면 원반의 각도나 지름크기가 복두칠성의 방위각이나 밝기와 흡사해 고려불교에 수용된 칠성신앙의 사례가 분명하다. 칠성바위가 운주사에 만들어져 신앙대 온 것에 대해 황호균씨는 "칠성신앙 자체가 도교의 중요신앙 형태이며 고려시대에 도교가 융성했다는 사서(史書)의 내용으로 미루어 칠성신앙이 불교와 관련을 맺는 가장 이른 시기의 유물"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별의 밝기에 대한 등급을 문헌으로 남긴 최초의 자료는 <동국문헌비고>(1770년刊)의 '象緯考'로 운주사 창건을 12세기로 볼 때 이보다 6백년 앞선 유물이다.

"흥덕사 복원" 청주시민 90% 찬성

'시민의 소리' 설문, "시서 비용부담해야" 60%

청주시민의 90%가 직지삼채요점을 주자·인쇄한 곳으로 알려진 흥덕사 복원에 찬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는 복원된 흥덕사에 직접 스님이 거주, 실제 사찰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60%의 시민은 흥덕사지가 청주를 세계적인 인쇄체카로 알리고 있는 만큼 흥덕사 복원비용은 청주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청주시 공무원 연구모임인 시민의 소리(탐장 오유석)가 청주시민 2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시민의 소리는 최근 열린 21C 청주모임 과제 발표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복원된 금당과 고인쇄박물관만으로는 청주를 세계적인 인쇄문화의 성지로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며 "미복원된 강당, 회랑 등을 고려의 전통적인 사찰건축양식으로 복원에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흥덕사 복원은 고종지료의 부족과 막대한 복원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는 조바심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음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kg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 제1장 승가의 생활
-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 제3장 책변으로 다이어트를
- 제4장 책면으로 다이어트를
-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 제8장 오기로 다이어트를
-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에시야문 / 값 5,000원

에시야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에시야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전지동 110-33
전화: 737-0665(영업부), 737-0661(편집부), 737-0667(리츠)